

한국폴리텍대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Mediating Effect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Korea Polytechnics Students

김문희¹, 김봉환^{2*}

¹숙명여자대학교 인적자원개발대학원 커리어개발학과, ²숙명여자대학교 교육학과

Moon-hee Kim¹, Bong-whan Kim^{2*}

¹Department of Career Development Graduate School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04310, Korea

²Division of Educa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04310, Korea

[요약]

본 연구는 한국폴리텍대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여 진로상담과 교육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한국폴리텍대학 II대학 I캠퍼스에 재학 중인 11개 학과 총 31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고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폴리텍대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진로준비행동,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각 변인들 간의 상호 유의미한 정적상관관계를 보였다. 둘째, 한국폴리텍 대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완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한국폴리텍대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진로준비행동에 간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 한국폴리텍대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진로준비행동 수준을 높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국폴리텍대학생 주변의 사회적 지지를 통해 학생들의 내적 요인인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높여 진로준비행동을 촉진할 수 있는 환경적 요인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Abstract]

This study attempted to provide basic data for career counseling and education programs by verifying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n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Korean Polytechnics students. A total of 314 students from 11 departments attending the I Campus of Korea Polytechnics II were surveyed, and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omplete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Second, th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had complete mediating effects on the relation between social support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ird, it was found that social support indirectly

<http://dx.doi.org/10.14702/JPEE.2021.473>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Received 30 November 2021; Revised 30 December 2021

Accepted 30 December 2021

*Corresponding Author

E-mail: bongwhan@sm.ac.kr

had a positive effect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rough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perceived social support of Korean Polytechnics students affects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increases the level of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is suggests that through active social support around Korean Polytechnics students, it is necessary to provide environmental factors that can promot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by enhancing the self-efficacy of career decision-making, which is a low-level factor for students.

Key Words: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areer Preparation Behavior, Korea Polytechnics Students

1. 서론

대학생 시기에 진로를 결정하고 미래의 직업을 준비하는 것은 인생에 중요한 과업이다. 신종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으로 취업률이 감소하고 4차산업혁명의 직업변동 속에서 청년 구직자는 진로결정과 취업준비, 급속하게 변화하는 미래에 대한 불안 등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2019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률을 보면 일반대학 63.3%, 전문대학 70.9%, 산업대학은 71.5%, 기능대학은 80.0%로 나타났다[1]. 기능대학이 대학이나 전문대학보다 월등히 높은 취업률을 보여주고 있다. 2006년 24개 기능대학과 19개 직업전문학교를 통합하여 한국폴리텍대학으로 전환되었다[2]. 2020년 산업기술인력 수급 실태조사에서 2019년 말 기준 산업기술인력 부족인원은 37,924명을 기록하였다[3]. 취업 난에도 불구하고 산업인력 수급의 미스매치 상황에서 산업경쟁력 확보와 4차산업사회의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기술인력에 관한 실증적인 고찰이 필요하다.

한국폴리텍대학은 고용노동부 산하의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훈련기관이다[4]. 한국폴리텍대학은 국가기관산업, 신기술, 시설, 제조업 분야의 직업교육 훈련과 기업만족형 인재양성을 위한 현장중심 교육훈련 과정인 FL(Factory Learning)교육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5]. 2019년 기준 한국폴리텍대학의 취업률은 80.3%, 취업 유지는 90.1%로 높은 취업률을 기록하였다[1]. 근래 채용전형은 기업에서 직무기술서(Job Description)를 제시하여 직무에 필요한 역량과 스펙을 갖춘 현장에 바로 투입이 가능한 경력자 같은 신입사원을 원하는 추세이다. 직무중심의 채용 트렌드에 맞추어 산업현장에 대응한 실무중심의 교육과정은 한국폴리텍대학의 높은 취업률의 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강현희(2015)는 한국폴리텍대학이 높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지만 중소기업 일자리가 많아 취업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고용 안정성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4]. 현재의 단편적인 취업교육에 집중된 기초적인 진로준비행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국폴리텍대학의 2년제 학위과정은 전공이론과 실습, 프로젝트와 현장실습 위주이고

진로교과목은 필수교과와 선택교과 각각 2학점에 불과해 학생들이 진로를 결정하고 체계적으로 취업을 준비하기엔 부족한 상황이다. 현장 실무중심의 교육에서 전문 기술능력의 향상에 비해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내적능력은 상대적으로 취약할 가능성이 있고 기술인력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진로지도가 필요한 상황이다. 진로와 관련된 선행연구가 분야별로 다양하지만 산업기술인력을 양성하는 기능대학 학생의 진로관련 변인들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폴리텍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을 촉진할 수 있는 내적인 심리요인을 파악하고 학교, 전공교수, 진로교수, 진로상담사 등 주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외적인 환경요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Ginzberg(1952)는 대학생 시기를 전 생애적 진로발달과정에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진로를 계획하고 준비하기 위해 취업목표를 달성하는 시기라 하였다[6]. 김봉환(1997)은 합리적인 진로결정을 위해서 인지나 태도적인 측면을 향상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진로결정 이후에 그 결정사항을 실행하기 위한 행동 등을 포함한 진로준비행동이 중요하다고 하였다[7]. 대학생 시기에 직업영역으로 진입과 성공적인 취업을 위해 구체적인 준비행동이 필요한데 진로준비행동은 진로목표 달성을 위한 중요한 변인이다.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진로개발 관련 심리적 변인들의 메타분석에 관한 연구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가장 활발하게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8]. 대학생 시기에 자기효능감의 형성은 개인의 상황과 환경의 인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통해 합리적인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9].

송현심, 홍혜영(2010)은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적인 요인으로 사회적 지지가 있고 외부로부터 제공되는 사회적 지지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킨다고 보고하였다[10].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개인이 부모, 친구 등 주변사람에게 받는 관심과 격려, 자원제공 등의 사회적 지지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향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진로준비행동 수준을 증진하는 긍정적인 요인임을 확인

할 수 있다. 사회적 지지와 진로준비행동,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상호 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본 연구에서 그 관련성을 확인하여 기술인력에 맞는 진로상담과 교육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폴리텍대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진로준비행동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 상호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한국폴리텍대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 진로준비 행동,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사이에 상호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2. 한국폴리텍대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매개효과를 보이는가?

II. 이론적 배경

A. 진로준비행동

김봉환(1997)은 진로준비행동을 개인이 진로결정 및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의미하는 개념이라 정의하였다[11]. Kanfer 외 (2001)는 진로준비행동은 직업을 갖기 위해 준비하는 대학생들, 실업자, 직무기회를 갖고 싶은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행동이라 하였다[12]. 진로준비행동은 진로결정을 위한 합리적 탐색행동과 진로결정 이후 결정사항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의미한다[13].

김봉환(1997)의 진로준비행동은 세 가지 측면으로 분류되는데 첫째는 정보수집활동으로 적성, 성격, 흥미, 능력 등과 같은 자신에 대한 이해와 직업 전망, 입직 방법, 필요 요건, 작업 환경 등과 같은 관심있는 직업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다. 둘째는 필요한 도구를 갖추는 활동으로 목표한 직업에 진입하기 위한 준비과정에 필요한 교재, 기자재, 장비 등을 구입하는 행동이고 각 직업에서 요구하는 면허증, 자격증 취득을 포함하여 진로목표달성에 필요한 도구들을 구비하는 것이다. 셋째는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천적 노력이고 이는 목표달성에 필요한 도구와의 상호과정이다[11]. 박완성(2002)은 진로준비행동을 자기탐색인 자신의 능력, 성격, 적성 등을 파악하는 것과 직업탐색인 직업세계, 임금, 학력수준 등의 정보를 파악하는 것으로 구분하였다[14].

B.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career)란 개인에 일생에 걸쳐 직업과 관련되는 모든 활동과 행동, 경험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된다[15]. 자기효능감은 Bandura(1977)에 소개되었는데 합리적인 방법으로 어떤 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의미한다[16].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Bandura(1977)의 자기효능감 개념이 진로결정과 연계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진로결정과 관련된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다는 자신감, 즉 진로선택과정에서 현명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개인적 확신성으로 정의된다[17]. Taylor와 Betz(1983)는 자기평가, 직업정보 수집, 목표선택, 계획수립, 문제해결로 구성된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척도(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 CDMSES)를 개발하여 개념화하였다[17].

국내연구를 보면 한주원(2013)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희망하는 진로목표에 대한 과제의 이행, 관련된 정보수집, 문제해결 과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진로 활동이 촉진되고, 향상되는 것을 뜻한다고 하였다[18]. 임수진(2017)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중요하고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는 것이 대학생의 진로결정과 계획 및 실천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19].

C. 사회적 지지

Cohen & Hoberman(1983)은 사회적 지지가 개인이 다양한 사회적 대인관계인 가족, 친구, 이웃, 교사로부터 받는 긍정적 자원을 의미한다고 하였다[20]. Maslow의 인간의 욕구 중 사회적 욕구는 다른 이들과 상호작용하는 것이고 이를 충족시키기는 것으로 언급된 것이 사회적 지지다[21].

House(1987)는 사회적 지지를 정서적 지지(애정, 신뢰, 친밀감, 감정이입), 정보적 지지(상황에 대한 정보), 평가적 지지(수용, 긍정적 자기평가), 물질적 지지(물질제공)의 측면으로 분류하였다[22]. 국내 연구에서 박지원(1985)은 사회적 지지를 4가지 범주로 분류하였다. 첫째, 정서적 지지로 존경, 애정, 신뢰, 관심, 경험의 행위를 포함하였다. 둘째, 정보적 지지는 직업의 기회를 알려주거나 직업을 구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것이다. 셋째, 물질적 지지로 일을 대신해 주거나 돈, 물건 등 필요할 때 제공하는 것이고 넷째, 평가적 지지로 자신의 행위를 인정해주거나 부정하는 등 자기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는 것으로 사회적 지지의 구성원을 통해 받을 수 있다고 지각하는 긍정적 도움이라고 정의하였다[23]. Betz(1989)는 사회적 지지가 진로와 관련하여 개인이 적극적으로 진로 행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24].

III. 연구방법 및 결과

A. 연구방법

1) 연구대상

한국폴리텍대학 II대학 I캠퍼스에 재학중인 2학년 학위과정의 11개학과 314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였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성별은 남자 294명(93.6%), 여자 20명(6.4%)으로 나타났다. 학년은 1학년 132명(42.0%), 2학년 182명(58.0%)으로 나타났다.

2)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 한국폴리텍대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사회적 지지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구성하였다.

3) 측정도구

a) 사회적 지지

박지원(1985)이 개발한 것을 조명실(2007)이 보완한 측정도구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정서적 지지(7), 정보적 지지(6), 물질적 지지(6), 평가적 지지(6)의 4개의 하위요인으로 총 25문항으로 5점 Likert 척도로 구성하였다. 조명실과 최경숙(2007)의 선행연구에서 종합Cronbach α 계수는 .96으로 측정도구의 신뢰성이 검증되었다[25]. 본 연구의 사회적 지지의 종합Cronbach α 계수는 .97로 나타났고, 하위영역 별 신뢰도는 정서적지지 .93, 정보적 지지 .92, 물질적 지지 .86, 평가적 지지 .91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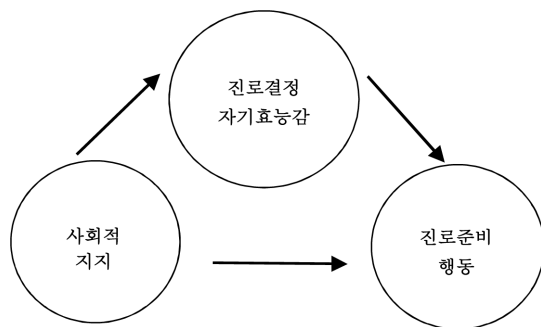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Fig. 1. Research model.

b) 진로준비행동

김봉환과 김계현(1997)이 개발한 척도를 이종찬(2013)이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정보수집 활동(5), 도구구비활동(5), 목표달성활동(6)의 총 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16문항으로, 5점 Likert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김봉환과 김계현(1997)의 연구에서 종합Cronbach's α 계수는 .84였고[7] 이종찬(2013)의 연구에서 종합Cronbach's α 계수는 .81로 나타났다[26]. 본 연구에서 진로준비행동의 종합Cronbach's α 계수는 .90로 나타났고 정보수집 활동 .71, 도구구비 활동 .80, 목표달성활동 .80로 나타났다.

c) 진로결정자기효능감

Taylor와 Betz(1983)가 50문항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척도(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 CDMSES)를 개발하였다[17]. 이 척도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단축형 척도(CDMSES-SF)인 자기평가(5), 직업정보수집(5), 목표선택(5), 계획수립(5), 문제해결(5)의 5개 영역 별로 5문항씩 총 2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 척도에 이은경(2001)이 수정하고 타당화 한 척도를 사용하였는데 목표 선택(11), 직업정보(6), 문제해결(3), 미래계획(5)의 총 25문항으로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다. 이은경(2001)의 연구에서 종합Cronbach's α 계수는 .85였다[27]. 본 연구에서 진로결정자기 효능감의 종합Cronbach's α 계수는 .92로 나타났고, 목표선택 .89, 직업정보 .81, 문제해결 .77, 미래계획 .72로 나타났다.

4) 자료분석

본 연구를 위해 SPSS 25 프로그램으로 통계적 검증을 하였고,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빈도분석을 통해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였다. 둘째, 문항내적합치도(Cronbach's α)를 산출하여 측정 도구의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셋째, 기술통계 분석을 통해 연구대상의 사회적 지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 수준을 파악하였다. 넷째, Pearson의 상관분석을 통해 각 변인 간의 상관성을 파악하였다. 다섯째, 사회적 지지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 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가 제안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여섯째, Hayes가 제안한 부트스트랩 검증(Bootstrapping)과 소벨 테스트(Sobel test)를 실시하여 사회적 지지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매개하여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간접효과 크기를 추정하고, 간접효과와 통계적 유의성 여부를 판단하였다.

B. 연구결과

1) 연구변인 들의 기술통계

한국폴리텍대학생의 사회적 지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하였고 결과는 표 1과 같다. 사회적 지지는 평균 3.85로 나타났고, 정서적 지지 평균 3.92, 정보적 지지 평균 3.92, 물질적 지지 평균 3.66, 평가적 지지 평균 3.89로 나타났고,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평균 3.51로 나타났고, 목표선택 평균 3.68, 직업정보 평균 3.44, 문제해결 평균 3.57, 미래계획 평균 3.17로 나타났다. 진로준비행동은 평균 2.91로 나타났고, 정보수집활동 평균 2.97, 도구구비활동 평균 3.04, 목표달성행동 평균 2.75로 나타났다.

평균 3.66, 평가적 지지 평균 3.89로 나타났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평균 3.51로 나타났고, 목표선택 평균 3.68, 직업정보 평균 3.44, 문제해결 평균 3.57, 미래계획 평균 3.17로 나타났다. 진로준비행동은 평균 2.91로 나타났고, 정보수집활동 평균 2.97, 도구구비활동 평균 3.04, 목표달성행동 평균 2.75로 나타났다.

표 1. 연구대상의 사회적 지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 수준

Table 1. Social support,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level of the study subjects

변수	문항 수	가능범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사회적 지지	25	1-5	1.24	5.00	3.85	0.67
정서적 지지	7	1-5	1.29	5.00	3.92	0.70
정보적 지지	6	1-5	1.00	5.00	3.92	0.71
물질적 지지	6	1-5	1.17	5.00	3.66	0.73
평가적 지지	6	1-5	1.33	5.00	3.89	0.68
진로결정자기효능감	25	1-5	1.12	5.00	3.51	0.53
목표선택	11	1-5	1.27	5.00	3.68	0.60
직업정보	6	1-5	1.00	5.00	3.44	0.68
문제해결	3	1-5	1.00	5.00	3.57	0.77
미래계획	5	1-5	1.00	5.00	3.17	0.66
진로준비행동	16	1-5	1.00	5.00	2.91	0.73
정보수집활동	5	1-5	1.00	5.00	2.97	0.80
도구구비활동	5	1-5	1.00	5.00	3.04	0.87
목표달성활동	6	1-5	1.00	5.00	2.75	0.81

표 2. 사회적 지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간의 상관관계

Table 2. Correlation between social support,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변수	사회적 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					
	1	1-1	1-2	1-3	1-4	2	2-1	2-2	2-3	2-4	3	3-1	3-2	3-3
1. 사회적 지지	1													
1-1. 정서적 지지	.970***	1												
1-2. 정보적 지지	.957***	.912***	1											
1-3. 물질적 지지	.915***	.845***	.826***	1										
1-4. 평가적 지지	.949***	.915***	.893***	.798***	1									
2.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418***	.367***	.406***	.403***	.416***	1								
2-1. 목표선택	.399***	.354***	.392***	.360***	.412***	.912***	1							
2-2. 직업정보	.340***	.287***	.340***	.336***	.330***	.842***	.674***	1						
2-3. 문제해결	.184**	.175***	.171**	.172**	.181**	.469***	.278***	.266***	1					
2-4. 미래계획	.316***	.273***	.291***	.344***	.295***	.782***	.597***	.579***	.281***	1				
3. 진로준비행동	.307***	.248***	.300***	.329***	.293***	.563***	.465***	.538***	.186**	.512***	1			
3-1. 정보수집활동	.370***	.325***	.354***	.387***	.339***	.513***	.441***	.468***	.158**	.468***	.851***	1		
3-2. 도구구비활동	.200***	.141*	.208***	.202***	.216***	.463***	.381***	.488***	.118*	.393***	.867***	.582***	1	
3-3. 목표달성활동	.253***	.201***	.241***	.290***	.231***	.512***	.410***	.466***	.211***	.491***	.919***	.696***	.703***	1

*p<.05, ** p<.01, *** p<.001

2) 연구변인 들 간의 상관관계

Pearson의 상관분석을 통해 한국폴리텍대학생의 사회적 지지, 진로준비행동, 진로결정자기효능 감 간의 상관성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사회적 지지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고($r=.418, p<.001$), 사회적 지지와 진로준비행동 간에도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r=.307, p<.001$), 진로결정자기 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 간에도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r=.563, p<.001$). 모든 하위영역 간에도 유의한 정(+)의 상관 관계를 보였다.

3) 사회적 지지와 진로준비행동에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 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증

a) Baron과 Kenny의 위계적 회귀분석

Baron과 Kenny의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사회적 지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 간 영향 관계를 확인하고, 사회적 지지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매개 역할을 하는지 검증을 하였다.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위계적 회귀분석은 3단계에 걸쳐 진행되는 회귀분석이다[28]. 1단계에서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고, 2단계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며, 3단계에서 독립변수와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 검증 시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고, 3단계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2단계보다 감소하는 경우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3단계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

치는 영향이 유의하면 부분매개효과,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으면 완전매개효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계적 회귀 분석은 3단계에 걸쳐 진행하였고 1단계에서 독립변수에서 매개변수 간의 유의성 검증을 하였고 결과는 표 3과 같다. 사회적 지지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사회적 지지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약 17.5%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지지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418, p<.001$). 즉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도 높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2단계에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유의성 검증을 하였다. 사회적 지지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사회적 지지는 진로준비행동을 약 9.4%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적 지지는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307, p<.001$).

3단계에서 독립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 간의 유의성 검증을 하였다. 사회적 지지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투입하여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사회적 지지와 진로결정자기 효능감은 진로준비행동을 약 32.3%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526, p<.001$).

4단계에서는 3단계의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2단계보다 감소하는 경우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3단계에서의 사회적 지지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2단계보다 감소하여 ($\beta=.307 \rightarrow .087$), 사회적 지지와 진

표 3. 사회적 지지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검증

Table 3. Mediating effects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n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단계	종속변수	독립변수	B	S.E.	β	t	p
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상수)	2.239	0.158		14.168***	.000
		사회적 지지	0.329	0.040	.418	8.135***	.000
		$F=66.172 (p<.001), R^2=.175, \text{adjusted } R^2=.172$					
2	진로준비행동	(상수)	1.624	0.229		7.094***	.000
		사회적 지지	0.334	0.059	.307	5.699***	.000
		$F=32.482 (p<.001), R^2=.094, \text{adjusted } R^2=.091$					
3	진로준비행동	(상수)	-0.005	0.254		-0.019	.984
		사회적 지지	0.095	0.056	.087	1.693	.092
		진로결정자기효능감	0.727	0.071	.526	10.242***	.000
$F=74.100 (p<.001), R^2=.323, \text{adjusted } R^2=.318$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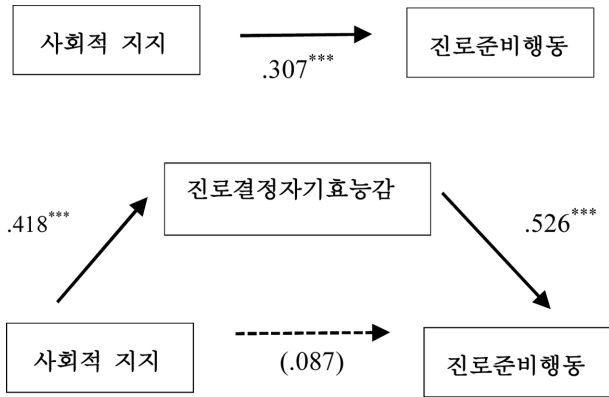


그림 2. 사회적 지지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모형

Fig. 2. Parametric model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n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로준비행동 사이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회적 지지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나타내면 그림 2와 같다.

b) 부트스트랩 검증과 소벨 테스트

사회적 지지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매개하여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간접효과 크기와 통계적 유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Hayes가 제안한 부트스트랩 검증을 하고[29] 결과는 표 4와 같다.

SPSS Process macro의 간접효과 모형인 4번 모형을 적용하였고, Shrout와 Bolger(2002)는 매개효과의 유의성은 95%의 신뢰구간을 계산하여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하였다[30]. 부트스트랩 표본 수는 5,000으로 설정하였고, 95% 신뢰수준을 바탕으로 유의성을 판단하였다. 사회적 지지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간접효과의 크기는 .220으로 나타났고, 이의 95% 신뢰구간은 .135~.315로 나타나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간접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Sobel(1982)이 제안한 소벨테스트(Sobel test)를 통해 간접효과 유의성을 검증 실시하였다[31]. 소벨통계량이 1.96보다 크거나 -1.96보다 작으면 영가설이 기각되므로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소벨테스트를 한 결과 소벨통계량은 6.412, 유의확률은 .001 미만으로 나타나 1.96 보다 커서 간접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 지지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매개하여 진로준비행동에 간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VI.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한국폴리텍대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 진로준비행동,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사이에 상호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 한국폴리텍대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의 목적에 따라 분석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폴리텍대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 간 상관성을 파악한 결과 모두 유의미한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유의한 정적상관관계를 보였고 한민영, 오은주(2019)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32]. 한국폴리텍대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의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지지와 진로준비행동 간에도 유의한 정적상관관계를 보였고 이는 나태균, 문성원(2012)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33]. 한국폴리텍대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의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나타낸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 간에도 유의한 정적상관 관계를 보였고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을 활발히 한다고 보고한 양진희, 김봉환(2008)의 선행연구와 맥락을 같이 한다[34]. 한국폴리텍대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아질 수록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표 4. 부트스트랩을 통한 간접효과 검증

Table 4. Testing indirect effects of bootstrapping

경로	간접효과 크기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사회적 지지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 진로준비행동	.220*	.046	.135	.315
Sobel Z=6.412 (p<.001)				

* 95% 신뢰수준에서 유의함

둘째, 대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해 본 결과 사회적 지지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완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 진로준비행동에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완전매개 하는 연구 결과는 우현아, 이희수(2020)와 동일하다[35]. 이러한 결과는 진로준비행동 과정에서 사회적 지지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며, 사회적 지지의 수준을 높여 진로결정자기 효능감을 증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셋째, 사회적 지지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매개하여 진로준비행동에 간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나타냈다. 사회적 지지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어 진로준비행동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한국폴리텍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생 주변에 사회적 지지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한국폴리텍대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진로준비행동,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변인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여 기능대학자 산업기술인재를 양성하는 한국폴리텍대학생들의 진로상담과 교육 현장에서 적절한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여 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을 촉진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한국폴리텍대학생이 사회적 지지를 많이 경험할수록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국폴리텍대학생이 합리적으로 진로를 결정하고 취업목표달성을 실행하는 진로준비행동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전공교수, 진로교수, 진로상담사, 기술 멘토 등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 정서적 격려와 정보적 조언 등의 사회적 지지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에서 지원 가능한 환경요인으로 기능대학 학생들의 상황과 특성을 고려하여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높이는 기술인력에 맞춘 진로상담,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입학부터 졸업까지 연계하여 적용할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해외 폴리텍대학에 대한 실증적인 고찰을 통해 성공적인 사례들을 발굴하여 한국폴리텍대학에 벤치마킹할 수 있는 연구를 제안한다. 후속연구는 해외 기능대학인 각국의 폴리텍을 조사하고 성공적인 진로상담과 지도 사례를 연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Korea Education Development Institute, "Higher education employment statistics in 2019," 2020.
- [2] J. G. No, "Development of teaching competency model of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faculties: Focused on Korea polytechnics," *The Korean Journal of HRD*, vol. 20, no. 1, pp. 131-165, 2018.
- [3] Korea Institute for Advancement Technology, "2020 industrial technology personnel supply and demand survey results," 2020.
- [4] H. H. Kang, "Effect of career barrier on polytechnics students'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e mediating effects of career resilience,"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 28, no. 1, pp. 59-78, 2015.
- [5] J. W. Kim, Y. K. Park, S. H. Kim, and J. S. Ko, "How did polytech college in suncheon achieve a remarkable performance in getting job rate?" *Journal of Employment and Career Korean*, vol. 1, no. 2, pp. 1-18, 2011.
- [6] E. Ginzberg, "Toward a theory of occupational choice occupations," *The Vocational Guidance Journal*, vol. 30, no. 7, pp. 491-494, 1951.
- [7] B. W. Kim and K. H. Kim,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the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ling and Psychotherapy*, vol. 9, no. 1, pp. 311-333, 1997.
- [8] Y. A. Cho and J. E. Jeong, "A meta-analysis of undergraduate students'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psychological variables related to career development,"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al Research*, vol. 30, no. 3, pp. 129-150, 2017.
- [9] J. K. Lee and D. I. Kim,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of the college students: focused on the psychological differences,"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 5, no. 4, pp. 993-1016, 2004.
- [10] H. S. Song and H. Y. Hong, "The influence of social support, career decision-making autonomy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 11, no. 3, pp. 1325-1350, 2010.
- [11] B. W. Kim,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the college students," Ph.D. dissertation,

- Seoul National University, 1997.
- [12] R. Kanfer, C. R. Wanberg, and T. M. Kantrowitz, "Job search and employment: A personality-motivational analysis and meta-analytic review,"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vol. 86, no. 5, pp. 837-855, 2001.
- [13] M. J. Kim and H. J. Yang, "Cluster types of career preparation behavior, job-seeking stress and career decision level,"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 16, no. 1, pp. 95-110, 2015.
- [14] W. S. Park, "The relation of career self-efficac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o psychological separation, sex-role identity, academic achievement for Korean high school students," Ph.D. dissertation, Korea University, 2002.
- [15] D. T. Hall, "Careers in and out of the organization,"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2002.
- [16] A. Bandura,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vol. 84, pp. 191-215, 1997.
- [17] K. M. Taylor and N. E. Betz, "Applications of self-efficacy theory to the understanding and treatment of career in decision-making,"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 22, pp. 63-81, 1983.
- [18] J. W. Han, "Social support and career identity influence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Journal of Secretarial Studies*, vol. 22, no. 2, pp. 117-140, 2013.
- [19] S. J. Lim, "The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barriers and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International Journal of Cotents*, vol. 17, no. 9, pp. 575-586, 2017.
- [20] S. Cohen and H. M. Hoberman, "Positive events and social supports as buffers of life change stres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vol. 13, no. 2, pp. 99-125, 1983.
- [21] H. J. Kim, "The impacts of social support upon adolescent's psychological well-being," Ph.D. dissertation, Chosun University, 2016.
- [22] J. S. House, "Social support and social structure," *Sociological Forum*, vol. 2, no. 1, pp. 135-146, 1987.
- [23] J. W. Park, "Development of social support scale for job research," Ph.D.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1985.
- [24] N. E. Betz, "Implications of the null environment hypothesis is for women's career development and for counseling psychology," *The Counseling Psychologist*, vol. 17, no. 1, pp. 136-144, 1989.
- [25] M. S. Cho and K. S. Choi, "A model testing on ego-identity, social support, career decision-making self efficacy, career maturit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late adolescenc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 8, no. 3, pp. 1085-1099, 2007.
- [26] J. C. Lee, "Theoretical study and comparison analysis of research results on the career decision self efficacy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Employment and Career*, vol. 3, no. 1, pp. 49-66, 2013.
- [27] E. K. Lee, "A study on the effect of self-efficacy upon the career development," Ph.D. dissertation, Ewha University, 2001.
- [28] R. M. Baron and D. A. Kenny,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51, no. 6, pp. 1173-1182, 1986.
- [29] A. F. Hayes,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Guilford publications, 2017.
- [30] P. E. Shrout and N. Bolger,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 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y Methods*, vol. 7, pp. 422-445, 2002.
- [31] M. E. Sobel, "Asymptotic confidence intervals for indirect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s," *Sociological Methodology*, vol. 13, pp. 290-312, 1982.
- [32] M. Y. Han and E. J. Oh,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perceived by university students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 The mediating effects of planned happenstance skills and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Youth Facilities and Environment*, vol. 17, no. 1, pp. 71-80, 2019.
- [33] T. K. Na and S. W. Moon,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of professor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foodservice and culinary art majors - focus on the university in chungcheong province," *Culinary Science and Hospitality Research*, vol. 18, no. 2, pp. 106-117, 2012.
- [34] J. H. Yang and B. W. Kim, "The influence of psychological separation, career identity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f female college student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

21, no. 2, pp. 57-71, 2008.

[35] H. A. Woo and H. S. Lee, "The effect of university student's social support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mediating effect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 efficacy,"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 and HRD, vol. 17, no. 1, pp. 29-60, 2020.



김 문 희 (Moon-hee Kim)_정회원

2021년 8월 : 숙명여자대학교 인적자원개발대학원 커리어개발학과 석사
2018년 8월 ~ 현재 : 한국폴리텍대학 인천캠퍼스 교양학과 외래교수
2016년 3월 ~ 현재 : 한국생산성본부 강사
<관심분야> 진로교육, 진로상담, 평생교육, 인적자원개발



김 봉 환 (Bong-whan Kim)_정회원

1982년 2월 : 공주사범대학 교육학과 학사
1985년 8월 :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석사
1997년 2월 :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박사
2005년 3월 ~ 현재 : 숙명여자대학교 교육학부 교수
<관심분야> 진로교육, 상담심리, 상담프로그램 개발